

진도군, 주차난 해소 ‘스마트주차장’ 도입

총 차량수 1만8805대 증가세
지난 3월부터 54면 유료 운영
설문조사 고객확보 도움58%
이용자중심 주차 회전을 향상

전라남도 진도군이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로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인구수는 2만8358명, 차량 수는 1만8805대로 전월과 비교해 37대가 증가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진도군에서는 2023년부터 남문로공영주차장(스마트주차시스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료 운영을 시작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 불편, 과태료 부과 문제 등

으로 일부 민원이 제기됐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진도읍 남문로 상가 일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차 회전을 높이고 불법주차와 장기 주차 문제도 해소했다는게 진도군의 설명이다.

남문로공영주차장은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아리랑사거리 구간에 조성됐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총 54면의 주차 공간을 공급했다.

첨단 기술 기반의 실시간 주차 관리로 주차 효율을 높이고 불법주차와 장기 주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남문로 상가 일대 상인 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문로공영주차장(스마트주차시스템) 도입 이후 상가 앞 주차 공간 확보가 고객 유입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58%에 달했으며 ‘보통’은 33%, ‘불만족’은 9%로 집계됐고, 이를 통해 남문로공영주차장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진도군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스마트주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정확한 적정 차량 대수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서로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남문로공영주차장을 지속 관리하며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

‘영암군민 아카데미’ 연다 26일 통합돌봄 주제 특강

전라남도 영암군이 오는 26일 청소년 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주제로 올해 첫 ‘영암군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공개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날 아카데미는 올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해 체계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의 돌봄 정책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유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등의 어르신 의료-돌봄 통합 지원 운영모델 개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연구 진행 등을 담당한 통합돌봄 전문가다.

영암군민 아카데미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을 찾은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강진군, 과수 탄저병 예방 당부 야간 저온 등 이상기후 대비

전라남도 강진군이 단감 등 과수농가들에게 탄저병 발생 위험을 경고하며 철저한 과원관리와 약제 방제를 당부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야간 저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전반에 낙과 및 수정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탄저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수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빗물과 바람에 전파되는 특징이 있는 병해로 감염되면 낙과와 갈색반점을 일으켜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무서운 병이다.

전년도 이병된 잔재물이 과수원에 남아 있으면 겨울철 잠복해 있다가 여름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급격히 발병하는 특징이 있어 예방 위주의 방제가 필요하다.

강진군은 포자 비산시기인 6월 하순이 전부터 예방 방제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적어도 한달에 1번 이상 살균제 처리를 당부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청계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지기동대가 지난 17일 청계면 청천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복지기동대의 날’ 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군·면 복지기동대원, 청계면 청년부녀회 등 20여명이 참여했고 무더운 날씨에도 대상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대상 어르신은 3년 전 배우자를 여의고 홀로 지내며 관절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어렵게 농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청소나 정리 정돈이 어려워 집안 곳곳에 습기와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했고 위생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태였다.

복지기동대원들은 곰팡이로 훼손된 벽지와 낡은 장판을 새로 교체하고 냉장고 잔반 처리, 생활용품 정리, 전기설비 점검 등을 진행하며 어르신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무안=김행연 기자



지난 17일 무안군 청계면 복지기동대원들이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해남군,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전라남도 해남군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찾아가는 과학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과학관을 비롯한 과학문화 체험시설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동형 전시·체험 프로그램이다.

과학 체험과 과학실습, 과학공연 등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행사다. 201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약 120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과학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과학을 쉽고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장에는 약 40여종의 이동형 전시물이 설치되며 최신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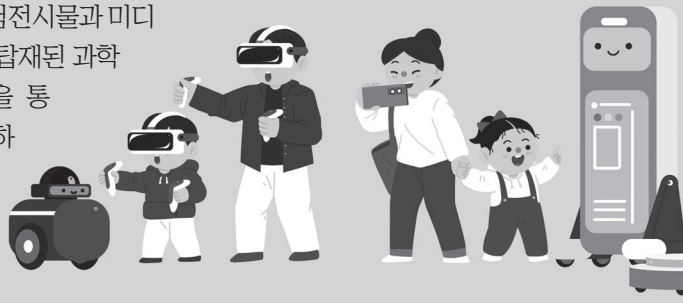
관람객들은 이동형 과학기술작동체험물과 VR·AR 콘텐츠를 통해 상상 속 미래기술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작동형 체험전시물과 미디어 콘텐츠 등이 탑재된 과학차량(싸이 휠)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과학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과학실험과 실습, 창의력 공작 프로그램 등 교육형 체험도 눈길을 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실습 키트와 교육 교구 등 다양한 교육재료가 무료로 제공되며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배우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번 ‘찾아가는 과학관’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단체예약 및 프로그램 문의는 한국과학관협회(042-862-7915)로 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목포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전라남도 목포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지원 정책으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연 최대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23년 3월 4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도 주소를 두고 거주한 19~28세(1997~2006년 출생자) 청년이다.

다만 복지포인트를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수혜자, 전남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는 지원금 중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11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광주은행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신청자는 8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해남군 교육재단, 장학금 지급 관내 4개 고교 장학생 105명

전라남도 해남군 교육재단이 2025년 상반기 해남고, 해남공고, 송지고, 화원고 등 관내 4개 고교 장학생 105명을 선발해 총 1억27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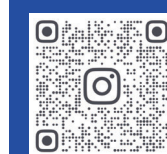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은 해남군 장학사업 중 명문 학교 육성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학업 성적 및 기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인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장학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세부적으로는 △해남고 45명 △해남공고 30명 △송지고 12명 △화원고 18명이 최종 선발됐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하반기에도 저소득 희망 장학생, 예체능 특기자, 학교밖 꿈드림 학생, 농어업인 육성 장학생, 대학교 성적 우수자, 해남 사랑 연구 장학생, 만학도 학생 등 7개 분야 350여명을 선발해 총 3억1770만원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 교육재단 이사장은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재단을 통해 다양한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을 마련해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